**제목 : 악몽의 실체**

**<잠에서 깨어난 엘리스>**

엘리스 : 역시 또 밤이야.. 이러다 낮에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?

엘리스 : 꿈에서 삼촌들이 나왔었어.. 엄마를 전부 믿지 말라고 했었지.. 이제 2일 밤이 남았는데 난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..

엘리스 : 왜 삼촌들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? 내가 알던 삼촌들이 아니야.. 그러고 보니 아빠.. 할머니.. 이모.. 오빠도.. 다들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야!!

엘리스 :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? 엄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나에게 답을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으니 물어보러 가야겠어..

**<엘리스 방안>**

아저씨 인형 : 이건 아빠친구인 공장 사장님이 크게 투자를 한 신상품이라며 나한테 선물해줬던 인형이야. 오늘따라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해...

곰 인형 : 어제도 꿈에 곰 인형이 나와서 날 도와줬어... 이 인형들의 정체는 뭘까?

토끼 인형 : 토끼 인형도 어제 꿈에 나왔었어. 인형들이 계속 망가져 가고 있어..

여우 인형 : 여우도 마찬가지야. 왜 날 지켜주는 걸까?...

**<문열고 나가서>**

엘리스 : 오늘은 기름 냄새가 유난히 많이 나고 있어.. 마치 공장 안에 있는 것 같아...

**<엄마와 대화>**

엘리스 : 엄마, 또 깨어있네.. 혹시 잠을 안자고 있는 거 아냐?

엄마 : 우리 예쁜 딸 엘레스 잘 잤니? 용케 꿈에서 잘 빠져 나왔구나.. 그 바보 같은 인형들의 방해만 없었어도...

엘리스 :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? 혹시 내 꿈에 엄마도 들어와 있었던 거야?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가족들이 꿈에서 나왔어.

엘리스 : 그들은 날 해치려 했고 난 그들을 물리쳤지. 이제 더 이상 나올 가족도 없어.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엄마가 그 꿈에 연관되어 있는 거야? 날 해치려고?

엄마 : 엘리스야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.. 어떻게 널 해칠 수가 있겠니.. 난 단지 널... 윽.. 머리가...

엄마 : 그런데 오늘은 내 옆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단다. 바로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공장 사장님이 널 만나고 싶다는 구나.

엘리스 : 엄마.. 공장 사장님은.. 1년 전에 죽었어. 그가 죽기 전날 밤 우리 집에 전화가 와서 내가 엄마를 바꿔줬잖아..

엘리스 : 아 맞다.. 전화기가 어디 갔지? 엄마! 전화기 어디다 뒀어?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소방서에 신고해서 응급차를 불러야겠어!

엄마 : 엘리스야.. 어서.. 여기서.. 탈출해야 한다..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... 힘들구나..

엄마 : 하지만.. 악마는 널 차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널 따라다닐 거야.. 끝내고 싶다면... 으윽.......

엘리스 : 엄마 괜찮아!? 악마가 날 차지하려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악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?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 나잖아!

엘리스 : 엄마가 1년 전부터 정신이 이상해 지면서 내 정신도 같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!

엄마 : 악마는.. 사람들의 영혼에 숨어살고 있단다.. 그러니 아무도.. 믿어선 안돼...

엄마 : 으윽...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.. 난 다시 누워야겠어... 잘자렴..

[엄마가 잠에 듬]

다시 엄마와 대화하면

엄마 : ... (엄마는 잠이 드셨다.)

**<방을 나와서>**

엘리스 : 그래 내 주변에 죽은 사람 중에는 공장사장님도 있었지..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피했었는데.. 꿈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최악이야..

엘리스 : 빨리 전화기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...

엘리스 : 갑자기 너무 졸려... 잠을 자면 안되는 걸 알지만... 잠을 자러 가야겠어...

**<보스전>**

제목 : 인과응보 (빨간색 글자)

삽화1 : 장난감 공장 사장은 엘리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둘은 장난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였다.

삽화2 : 그러나 장난감 공장 사장은 사실 오랫동안 엘리스의 아버지를 시기하고 있었다.

삽화3 : 그는 가족도 없었고, 결혼도 하지 않았고, 자녀도 없었다. 오로지 성공에 대한 집념으로 공장 사장까지 되었다.

삽화4 : 그에 비해 엘리스의 아버지는 많은 가족과 아내와 어여쁜 딸도 있었고 장난감 공장 사장은 멀리서 지켜보며 부러워했다.

삽화5 : 그러던 중 자신이 개발한 신제품이 흥행에 실패하고 반면에 엘리스의 아버지가 새로 디자인한 인형이 인기를 끌게된다.

삽화6 :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만큼 참아왔던 시기심이 극에 다다른 공장사장은 엘리스의 아버지 장난감 가게를 몰래 폭파시킨다.

삽화7 : 경찰의 1차 조사를 피했지만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되고 증거품을 갖고 있는 엘리스의 엄마를 돈으로 회유하려고 공장으로 불러낸다.

삽화8 : 하지만 공장 사장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엘리스의 엄마는 공장에서 그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.

삽화9 : 그는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자신의 시기심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.

**<보스전 전투>**

엘리스 : 여긴 어디지? 너무 답답하고 기름냄새도 많이 나...

엘리스 : 또다시 꿈 속이야.. 이번엔 분명 공장 사장...

앤비 : 나의 보석.. 가질 수 없었던 내 가족을 대신할 엘리스!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...저건 공장사장 목소리야.. 끔찍하게 변해버렸어..

앤비 : 엘리스야 이제부터 우린 멋진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크하하하! (빨간색 글자)

**<앤비 전투 대사>**

대사1 : 엘리스 난 너 같은 딸을 정말 갖고 싶었어! 내 딸이 되어다오! (빨간색 글자)

대사2 : 엘리스 일단 피하거라... 이건 내가 아니다...

대사3 : 엘리스 내 공장에 있는 모든 인형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어! 어때? 기쁘지? (빨간색 글자)

대사4 : 엘리스야 돈주머니를 컨베어 벨트에 올려서 날 쓰러뜨리거라!

대사5 : 난 네 아버지를 증오한다!! 내가 갖지 못한 가족을 갖다니!! 그러니 너도 증오해주마 크하하하! (빨간색 글자)

대사6 : 추악한놈... 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.. 엘리스는 건들지마!

대사7 :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져선 안돼!! (빨간색 글자)

**<전투 종료 후 >**

앤비 : 안돼!! 난 아직 가족을 갖지 못했어! 엘리스 넌 나의 가족이 되어야 해!(빨간색 글자)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놈아.. 네가 가족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.. 외로운 건 전부 너의 탓이라고.. (하늘색 글자)

앤비 : 난 영원히 외롭게 살기 싫어... 사실은 외로운 게 너무 싫었단 말이야!! (빨간색 글자)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엘리스.. 내가 네 아버지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다.. 영원히 벌을 받으며 참회하겠지만..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..

엘리스 : 당신.. 우리 가족에게 왜 그랬어!? 우리 아빠는 당신의 친구였잖아.. 당신은.. 짐승이야!!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...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.. 미안하다 엘리스.. 나의 시기심이 악마를 불러들였고.. 악마에게 몸을 빼앗겼다.. (하늘색 글자)

엘리스 : 그런 변명으로 당신이 한 짓이 정당화 될 수는 없어..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그렇지.. 그 어떤 방식으로도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없구나.. 다만 악마는 지금 네 엄마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만 말해주고 싶구나..

엘리스 : 뭐라고!? 그게 정말 사실이야? 당신이 우리 엄마까지 건든 거야?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1년 전 네 엄마와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던 악마가 네 엄마의 복수심을 이용해 그녀의 몸을 빼앗았고.. 난 네 엄마의 총에 죽었다..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그리고 악마는 내 엄마에게 완전히 옮겨 갔지.. 너의 가족들의 죽음.. 모든 건 악마가 널 차지하기 위해서였어..

엘리스 : 말도 안돼.. 내가 뭐라고.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

공장사장 (흰 그림자) : 쉽게 믿을 수는 없겠지만.. 그게 진실이다.. 그럼 잘자렴...

엘리스 : 잠깐!

**<엄마의 일기장>**

......중략......

공장 사장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의 시신을 숨겼다. 그의 공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.

남편의 복수를 했지만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. 내 몸 안에 악마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.

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자 놈의 계획과 지금까지 우리가족에게 한 짓들을 알게 되었다.

악마의 마지막 목표는 나의 딸 엘리스였다.

난 내 목숨을 바쳐 그녀를 지켜야 한다. 다행히 악마가 잠시 다른 사람의 꿈에 간 사이에는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.

그리고 악마의 영향으로 나의 정신이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. 그렇다면 인형들을 이용해서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.

피할 수 없다면 싸워야 한다. 난 악마에게 저항할 것이다. 놈은 내 몸과 정신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다. 그리고 알 수 없는 주술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속해서 잠을 자도록 만들고 있다.

꿈은 악마의 힘의 원천이다. 놈을 쓰러뜨리려면 꿈속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.

나의 사랑스러운 딸 엘리스. 부디 이겨내 다오. 엄마는 모든 걸 다해 널 지킬 거야.

......중략......